

# 제주지역의 협력(수눔음)형 사회적 자본 증진방안 연구

김인성\*·황경수\*\*·오윤정\*\*\*

- I. 서론
- II.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III. 제주의 협력형 사회적 자본 자원 탐색
- IV. 사회발전 동인으로써 협력형 사회적 자본 증진전략
- V. 결론 및 제언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하위요인 중에서 제주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 협력요인을 도출하고, 협력(수눔음)형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했던 제주의 향토자원을 조사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사회적 발전을 이끌 동인인 협력형 사회적 자본 증진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수익창출을 위한 협력형 사회적 자본 증진 전략으로써는 농업부문 현장에서 수눔음의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재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증진 전략으로써 과거의 협력형태나 새마을운동시 노력동원 등의 정신이 살아나는 마을만들기 형태

\* 주저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 공동저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를 제안하였다. 셋째, 마을에 대한 사안별 봉사형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증진 전략으로써 마을계를 활성화시키고,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외국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제주지역, 수눔음, 협력형 사회적 자본, 협력형 사회적 자본 증진전략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이 내재하고 있는 협력(수눔음)형 사회적 자본의 원류를 찾아 조사하고, 현 시대에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매개체로 삼고자 하는 데에 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자본’이라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사회간접 자본’이라고 한다. 이는 물적 자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서 사람에 의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의 형태가 사회적 자본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지방정부 등이 신뢰를 받거나 네트워크가 넓게 형성되어 있거나 도덕적 이미지 등이 좋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제주도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힘은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으나 후기산업사회의 성격으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지역공동체에서의 협력의 모습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조상들이 그동안 협력을 통해 형성했던 사회적 자본의 모습을 찾아 정리하고, 그 정신 속에서 미래의 제주지역의 발전의 동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전략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첫째, 사회적 발전이 동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학자들이 다양하게 주장하는 내용들로부터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그 중 협력적 사회적 자본이라는 요소를 도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둘째, 그 틀을 활용해서 제주도의 풍습 중에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자원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다. 셋째, 협력형 사회적 자본을

제주지역 발전의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 II.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1.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고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 및 유용성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1916년에 처음 사용되긴 하였으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사회구조, 신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sup>1)</sup>에서는 사회적 자본 이론의 핵심은 사회적 연계망(network)이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을 제도화된 네트워크에 연계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신뢰, 규범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sup>2)</sup>는 사회적 자본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실체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구조의 일련의 측면을 구성하고 있고, 구조 내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뢰(trust)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sup>3)</sup>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1) 관련된 논의는 부르디외(Bourdieu)의 「The Forms of Capita」(1986)연구와 퍼트남(Putnam)의 「The properous community—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1993)라는 연구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부르디외(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가 제도화되거나, 혹은 지속적인 연결망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으로, 혹은 가상적으로 연계 되는 혜택이나 기회의 총합으로 정의하였고, 퍼트남(Putnam)은 사회적 자본이론과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부르디외(Bourdieu)와 콜만(Coleman) 등의 초기 학자들이 사회자본에 있어 사회관계의 내재성과 관계망을 설명하였다면, 그는 사회자본 연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그 내용을 풍부하게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콜만(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 1988.

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정직하게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범주화하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향<sup>4)</sup>이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 개념이 도입되면서 국가 및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범주화하는 연구<sup>5)</sup>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보다

3) 크리스나(Krishna)는 『Social Capital Assessment Tools』, 2000의 연구에서 모든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는 신뢰(trust)와 협력(cooperation)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고 보았고, 그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를 확대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 자본(Institutional Capital), 규범과 신념을 통해 신뢰를 확대하고 구성원 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관계적 자본(Relational Capital)으로 분류하고 있다.

4) 관련된 논의는 알란 케이(Alan Kay)의 『Social capital, the social acnony and community development』, 2005 연구와 그루테이트 등(Grootaert, Narayan, Jones & Woolcock)은 『Integrated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SC-IQ)』, 2003 연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알란 케이(Alan Kay)는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신뢰, 호혜주의&상호관계, 공동규범적 행동, 공동행위와 소속감,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효과적 정보채널의 여섯 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루테이트 등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모임 & 네트워크(groups & networks), 신뢰 & 결속력(trust & solidarity), 집단행동 & 협력(collective action & cooperation), 정보 & 소통(information & communication), 사회적 응집력 & 포용력(social cohesion & inclusion), 의사결정권 & 영향력 & 정치적 활동에 참여(empowerment & political action)의 여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통합적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회적 자본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도가 수행되면서 사회과학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5) 사회적 통합의 증진 및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통해 지역의 발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박희봉의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2000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규범, 신뢰, 집단 내 협력, 정보공유, 정치참여, 수평적 단체, 수직적 단체, 자원봉사 참여로 구분하여 네트워크의 세분화를 시도하였고, 소진광의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004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신뢰, 참여, 연계망(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의 5가지 영역으로 유형화하여 각 지표별 표현인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연구<sup>6)</sup>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하면, 국내의 사회적 자본 유형 분류는 외국의 사회적 자본요소를 수용하면서도 이타주의, 사회구조, 관용성 등 한국적인 요소를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부터 정의한다면 “사회적 자본이란 공동체 내의 행위자들 간에 협동적 행위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등의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개념 규정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로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개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외연구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지표와 더불어 협력지표와 사회적 결합, 즉 사회적 응집력 요소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의 요소를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협력과 이타주의, 그리고 파트너십 등의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협력적 요소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회적 결합, 정보와 소통, 정치적 참여와 활동, 소속감, 관용성 등도 논의되고 있다.

국내의 학자들의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 중 공통적인 다섯 가지의 요소(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협력)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의 학자들의 사회적 자본 분류와 요소 종합

연구자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협력	기타
putnam(1993)		○	○	○		○	사회적 결합
Krishna(2000)		○				○	
Grootaert, Narayan, Jones & Woolcock(2003)		○		○	○	○	정보통신, 사회적 결합, 정치적 참여와 활동 행동
Alan Kay(2005)		○	○	○		○	호혜주의, 소속감, 정보
박희봉·김명환(2000)		○	○	○	○	○	정보공유
소진광(2004)		○	○	○	○	○	이타주의
한국교육개발원(2007)		○		○	○	○	시민의식, 관용성, 파트너십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0)		○	○	○	○		사회구조
한국행정연구원(2012)		○	○	○		○	관용성, 소속감, 파트너십

자료 : 저자가 국내외서적들을 분석하여 정리한 표임.

이상의 다섯 가지 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협력 등은 각각 요소마다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협력형 사회적 자본에 한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틀 아래서 협력형 사회적 자본이라 함은 “협력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III. 제주의 협력형 사회적 자본 자원 탐색

자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6) 홍영란 외 『사회적자본 지표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연구에서는 사회적자본의 측정지표로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으로 분류하였고, 조권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연구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사회구조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의 류현숙 외 『지자체 사회적 자본 측정지수 개발 및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영역으로 신뢰(신뢰 및 관용성), 규범(시민의식 및 소속감), 연결망(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참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로 분류하며, 관련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속성이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등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 1.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 중 제주지역에서 ‘협력’이라는 요소를 통해 공동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활용되었던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조사에 한정하였다.

제주지역의 협력형 사회적 자본 자원을 탐색하기 위해서 문헌자료 분석과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성씨만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문헌의 내용과 인터뷰의 내용을 종합하여 각각의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유형들을 정리하였다.

인터뷰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제주지역의 협력형 사회적 자본 정리를 위한 인터뷰 대상

면접대상	연세	면접일자	거주지
송00(남)	63	2013.11.27	제주시 노형동 해안마을
황00(남)	80	2013.11.29	제주시 이호동 현사마을
현00(남)	76	2013.12.1	제주시 하귀1리 동귀리 군항동
김00(남)	60	2013.12.2	서귀포시 가파도
현00(남)	72	2013.12.13	제주시 함덕리 비석거리

### 2.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필요했던 제주지역의 차별적 특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조사한 제주지역의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육지부의 풍습이나 문화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주도는 섬지역이며 육지부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특징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그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모습도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협력형 사회적 자본이 필요한 제주도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제주도는 재해와 재난은 물론 외구의 침입 등 각종 외생변수로 인해 한 마을 전체가 협력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였다. 특히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였다. 잉여자원이 풍부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주민들의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둘째, 섬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삶을 위한 자원을 도내에서 스스로 조달해야 했다. 모든 가구는 분업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협력하여 노동력과 노하우를 나누어 공유하는 협력의 모습이 있어야 했다.

셋째, 자원의 부족으로 관혼상제 등 행사시에 집단별 도움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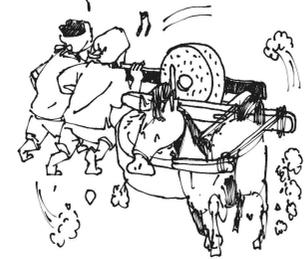
넷째, 미래에 다가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보험의 형태가 필요한 사회였다. 가구별로 독립적으로 큰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일에 대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적 보험 형태가 필요한 사회였다.

이와같은 제주지역의 특성상 협력의 모습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나 풍습 이외에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제주지역의 협력형 사회적 자본 자원조사

#### 1) 몰방애

보리나 조 등을 도정할 때 사용하는 연자매를 제주에서는 ‘몰ㄱ레’, ‘몰방애’, ‘몰방이’ 등으로 불리었다. 이 몰방애는 우리나라와 중국 북부지역에서도 사용되었지만 물레방아 등이 없는 제주지역에서는 이 몰방애에 많이 의존했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부락마다 없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sup>7)</sup>



<그림 1> 몰방애(강일 그림)

몰방애는 주로 보리나 조 등의 이삭을 떨어내거나 곡식의 이삭에서 알갱이를 떠는 일, 곡식을 찼

<sup>7)</sup> 법환마을회(2000), 「법환향토지」, p.233

거나 뺏는 일에 이용되었다.

보통은 소나 말을 이용해서 방애를 돌리는데, 사람들이 직접 돌리기도 했다.<sup>8)</sup> 바닷가의 마을에서는 말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주로 사람들이 돌렸고, 중산간으로 가면서 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sup>9)</sup>

몰방애는 각 마을마다 4~5개씩, 대체로 30가구마다 한 틀씩 마련하였는데, 주로 이용하는 가호(家戶)들의 중앙에 위치하는 사거리 등에 있었다.<sup>10)</sup> 개인이 ‘독방아’를 마련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몰방애 집’이란 계를 조직하여 관리·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때 계에 포함되는 가구들을 계원이라 하였고, 계원을 중심으로 운영한 것이 일반적이었다.<sup>11)</sup>

몰방애를 설치할 때, 어떤 집은 땅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집은 돈을 내어서 지었다. 이렇게 기여한 가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나 ‘집’이 되는 것이었다.<sup>12)</sup>

몰방애를 통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타지역과 다를 바 없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이 몰방애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어서 그 협력의 필요성은 다른 어떤 풍습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계원끼리 운영하는 모습이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양해하에 혹은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협력형태의 사회적 자본이었다.

## 2) 공동목장(마을 공동목장)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 목초지, 건물, 목책 등을 설치한 장소를 목장이라고 한다. 마을 공동 목장은 전국에서 오직 제주 지역에만 존재하는 목장 제도로,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목장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우마를 방목하는 목축지를 말한다.<sup>13)</sup>

8) 한00, 2013.12.13 인터뷰.

9) 황00, 2013.11.29 인터뷰.

10) 김동섭,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에서 인용.

11) 현00, 2013.12.1 인터뷰.

12) 송00, 2013.11.27 인터뷰.

1933년 부터 목야정리계획으로 리 단위별로 목장조합을 설치하여 각 읍면별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연합회를 조직하여 급수장, 돌담의 축성, 목장내 목초의 재배 등 사업들이 농회를 통해서 추진되었다.<sup>14)</sup> 이러한 사업이 마을공동목장이 제도권으로 자리매김되고 활성화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림 2> 공동목장강일 그림

마을 공동 목장의 형태는 마을마다 다르지만 국·공·사유지를 임대·매수하여 확보한 경우가 있고, 마을 주민들이 토지를 내놓아서 공동목장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sup>15)</sup> 밭별로 경계를 두어 자기 밭의 경계를 알 수 있는 ‘찍 밭’형태의 공동목장이 있고, 경계가 없이 운영되는 ‘계’가 있었다.<sup>16)</sup>

조합회의에서 목장을 관리하는 목감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제주시 해안마을은 목감 후보자도 마을공동목장에 기부금 형태로 일정한 액수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절차를 가졌다. 제시한 금액 중에서 가장 큰 액수를 제안한 목감후보자가 선정되는 형태를 띠었다고 한다. 이 목감은 목장을 관리했다. 조합원들에게서 목장의 소나 말의 수에 따라 관리비를 받아서 수입을 얻었다. 조합원들이 내는 회비의 경우 케원(조합원)에게는 적게 받고 비조합원에게는 많이 받았다. 조합원의 경우도 일정 두수 이상이면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형평성을 확보했다.<sup>17)</sup>

13) 강만익,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에서 인용.

14) 남제주군(2006), 『군제 60주년 남제주군지 제Ⅱ권』 p.424.

15) 송00, 2013.11.27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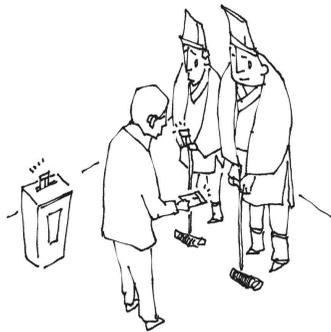
16) ‘계’는 대형 목장에서 경계구분없이 조합원들이 활동하는 경우이고, ‘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밭의 경계가 있으면서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한 조합원이 권리 혹은 땅 등을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송00, 2013.11.27 인터뷰).

제주지역에서 마을공동목장은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하던 제도라 할 수 있다.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운영하였지만 마을사람들이 공동목장을 만들어 협력기제를 통해 마을 전체의 소와 말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기를 수 있는 시스템적 사회적 자본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 3) 겹부조(扶助)

제주지역에서 관혼상제의 큰 일을 치를 때 금전이나 쌀, 술 등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을 ‘부조’라 하였다. 제주지역의 부조 중에 ‘겹부조’라는 제도가 있어 다른 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협력의 모습이 있었다. 긍정적으로 보면 사회적 보험의 역할을 하였지만 오고가는 부조액 총액으로 보면 사회의 병폐라고 하는 지적도 있어왔다.

조카가 결혼을 한다면 부모와 조카에게 부조를 하는 것이다.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 어머니에게 부조를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제분들 모두에게 부조를 하는 것이다. 역으로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3> 겹부조(강일 그림)

이 겹부조는 친척들에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네 분들에게도 부조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겹부조를 하였다고 한다. 그 가족 중에서도 평소에 부조를 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으면 그 구성원에게는 부조를 하지 않았다. 한 때는 정부에서 겹부조의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부인회장, 청년회장 등을 통해서 겹부조 못하게 계도하고 단속도 하였지만 결국은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문화가 살아났다.<sup>18)</sup>

<sup>17)</sup> 송00, 2013.11.27 인터뷰.

이러한 겹부조의 형태는 사회적 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타적인 사회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제도이기도 하였으며, 저축의 모습도 있는 협력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겹부조는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개인의 부조라는 협력행위가 결국은 다시 자기에게 그만큼 결실로 되돌아오는 협력의 룰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자본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상여(화단계)

화단이라고도 하는 상여는 제주도에서 장례식 때 시신을 장지에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상여를 보관하는 곳을 화단 집이라고 하였다.<sup>19)</sup> 상여는 1991년 6월 4일 제주도민속자료 제6호로 지정되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상여는 대개 마을에 ‘하인’이라고 불리우는<sup>20)</sup> 청년들이 메는 것이 상례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마을청년들이 메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여성들은 상여와 연결된 긴 끈을



<그림 4> 상여(강일 그림)

<sup>18)</sup> 현00, 2013.12.1 인터뷰, 김혜숙,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 에서도 겹부조의 모습을 없애지는 운동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sup>19)</sup> 현용준,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 에서 인용. 현사마을에서는 이 집을 ‘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황00, 2013.11.29 인터뷰).

<sup>20)</sup> 제주시 서부지구에는 마을마다 ‘하인’이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현00, 2013.12.1, 인터뷰). 그 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돼지를 잡을 때 역할을 했고, 도감의 역할이나 상여를 메는 것, 가마를 메는 역할 등을 하였다고 한다.

잡고 설빔메면서 상여를 이끄는 모습으로 행진해 나아갔다.

제주시 서부 하귀1리 동귀마을에서는 ‘골’이라는 지역단위의 규모로 참여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온골’로 하면 마을 전체가 모이고, ‘반골’ 정도로 하면 몇 개의 반이나 일정 지역의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모여서 상여를 메고, 설빔을 댄 것이다.

이 때 상여를 댄 청년들에게는 상주별로 떡 등을 쥐서 수고비를 대신 했다. 그 외에도 밥, 고기, 술 등으로 보답했으며, 설빔(설배)댄 여자분들에게는 수건을 나눠주는 문화가 있었다. 선소리를 하면 후렴으로 여자들이 받고 가끔은 선소리하는 사람이 춤도추기도 하였다.

부자들의 경우 온골로 장례를 치워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석하게 하고 많은 밥과 음식을 준비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니 어느정도 부를 갖고 있는 집들만이 온골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상여와 같은 협력형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협력의 형태라 할 수 있지만 만석꾼 같은 거부가 있는 육지부와는 달리 가난한 주민들이 서로 협력에 의해서 장례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봉사도 하지만 상가에서도 상주별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면 마을전체가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협력적 사회적 자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5) 원담

‘원’이라고도 하는 ‘원담’은 파도가 많지 않은 해안에 돌담을 쌓아 바닷물이 밀려들 때 멸치·고등어 등의 어족이 여기에 들어오게 하고,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하여, 돌담 안에 남아 있던 것을 포획하는 어로형태이다.<sup>22)</sup>

마을에 따라서는 ‘개’라고 부르기도 했다. 돌로 만든 그물인 셈이다. ‘개’는 해변 후미진 곳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원담은 지형을 이용해 축조한 것이다.<sup>23)</sup>

21) 현00, 2013.12.1, 인터뷰.

22) 제주도(2006), 『제주도지 제2권 역사편』, p.306.

제주의 원담은 마을마다 다르지만 마을 공동 소유로 지켜지는 경우와 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함덕과 이호의 경우는 공개적으로 활용하였다.<sup>24)</sup>

멜(멸치)이 들면 “멜들었져”라는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한데 나와 잡았고,<sup>25)</sup> 원담을 쌓고 보수하는 일도 공동 작업으로 진행됐다. 겨울철 파도에 허물어진 원담을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나면 풍어를 기원하면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동귀리 균형동의 경우는 원담계가 있어서 계원들이 보수하고 우선적으로 원담에 들어온 고기나 멜 등을 우선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sup>26)</sup>

원담을 통한 협력형태는 마을마다 달라서 어떤 마을은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어떤 마을은 원담계원들이 우선권을 가지기도 했다. 그래도 다소 유연하게 마을주민들이 원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공개적이고 유연함은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원담의 경우 처음에는 계원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지는 형태의 협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라 할 수 있다.

### 6) 그릇재(계)<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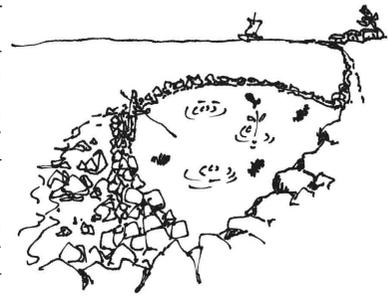
23) 곽광민,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에서 인용.

24) 현00, 2013.12.13 인터뷰.

25) 황00, 2013.11.29 인터뷰.

26) 현00, 2013.12.1 인터뷰.

27) 이렇게 협동적인 개념의 ‘재(계)’가 있는가하면 60년대에 들어서는 ‘다나무시’라고 사적인 금융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병폐가 생기기도 했다. 다나무



<그림 5> 원담(강일 그림)

동네 사람들 중 뜻이 맞는 사람끼리 돈을 내어 그릇을 사서 공동으로 쓰는 모임을 그릇재라고 한다. 그릇을 사서 관혼상제 등 큰 일이 있을 때 가져가서 쓰고, 일이 끝나면 씻은 후 가지고 있다가 다른 회원에게 넘겨주어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sup>28)</sup> 그릇재와 비슷한 내용으로 쌀재가 있어서 계원들 중 경조사가 생길 경우 그 계원들이 일정량의 쌀을 모아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었다. 예를 들어 2되씩 20명이 모아서 한 집에 주면 10말 정도가 되어 일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sup>29)</sup>

이러한 재외에도 ‘돼지 재’가 있어서 계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 키우던 돼지를 추렴해서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명절을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 6> 그릇재(강일 그림)

이렇게 ‘재’라는 협력형태는 가장 경계가 명확한 협력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계원들만이 임무를 이행하고 혜택을 갖는 형태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치뤄야 할 관혼상제는 많아서 이러한 ‘재’와 같은 협력의 사회적 형태가 많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7) 초집일기

초집을 인다는 것은 초집 지붕을 새로운 새와 줄로 단장한다는

시 오야가 24명 혹은 12명을 구성하여 월 한 구지에 1800원 정도(당시 하루 밭에서 일하면 120원을 받는 정도였다) 를 매달 내게 하고, 2년 사이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총액을 먼저 받은 사람은 문제없지만 후순위로 있던 사람들은 ‘오야’라는 관리자가 도망가버리면 돈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한00, 2013.12.13)

<sup>28)</sup> 황00, 2013.11.29 인터뷰.

<sup>29)</sup> 현00, 2013.12.1 인터뷰.

것을 의미한다. 초집을 일기 위해서 한 가족이 모두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줄을 어울릴 때 기본적으로 네 명이 필요하다. 줄을 돌리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두 명, 그 두 명이 만들어가는 줄을 동시에 하나의 줄로 합치는 사람, 그리고 각단(새의 종류)<sup>30)</sup>을 공급하는 사람 등 네 명이 꼭 필요하다.<sup>31)</sup>



<그림 7> 초집일기(강일 그림)

하루종일 호랭이를 돌리고, 띠를 고르게 손으로 조절해서 먹이는 일은 숙련공이어야 하기 때문에<sup>32)</sup> 동네분들 중에서 모셔와서 줄을 이기도 했다.

초집일기의 협력형태는 가까운 이웃집들끼리 서로 돕는 수놓음 형태와 더불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그룹적 협력의 형태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마을전체가 서로 협력할 수 밖에 없는 협력의 사회적 자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8) 케왓계전(契田)

해변가 주민들이 초가집의 지붕을 일기 위해 집줄을 꼬으거나 집을 일 때 필요한 ‘새’를 구하기 위해 주민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케왓’(새밭)을 사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중산간 지역의 밭을 케왓이라고 하고, 계원들이 같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케왓계전’이라고 하였다.<sup>33)</sup>

함덕의 경우는 여러 명에서 돈을 모아 밭 하나를 같이 사서, 한

<sup>30)</sup> 참고로 집의 들레를 장식하는 것은 ‘어욱’(역새), 지붕에 이는 새는 ‘새’ 줄을 만드는 새는 ‘각단’이라고 한다(송00, 2013.11.27 인터뷰).

<sup>31)</sup> 송00, 2013.11.27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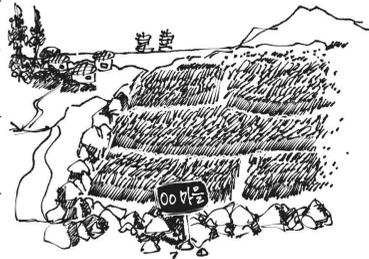
<sup>32)</sup> 중문마을회(1996), 『중문 향토지 불란지야 불씨지라』, p.253.

<sup>33)</sup> 송00, 2013.11.27 인터뷰.

번에 같이 베고, 나중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sup>34)</sup>

여유가 있는 집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큰 밭(새왓)을 사서 일정지분을 나누어주거나 분양하기도 했다고 한다.<sup>35)</sup>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년에 한 번 오는 일이지만 초집을 일 새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산간 지역에서 몰래 베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가구가 같이 케왓을 임대하거나 구입해서 새를 구하는 협력형태로써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협력한 모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협력형태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림 8> 케왓(강일 그림)

### 9) 용수집단

지표수나 용천수가 없을 때, 식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소 등의 먹을 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수를 만들 때 협력하는 모임을 용수집단이라고 한다.<sup>36)</sup>

주로 인근 주민들끼리 땅을 내놓기도 하고, 직접 인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마을전체의



<그림 9> 용수집단(강일 그림)

동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용수에 대해서 폐쇄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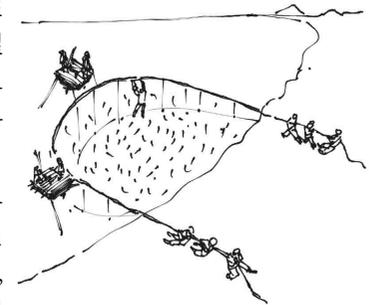
특히 소들이 물을 먹을 때 사용할 연못이나 물통들이 없을 때, 마을 내의 몇몇 가구들이 모여서 소 물먹일 곳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sup>37)</sup>

이 용수집단은 필요에 따라서 이웃간에 모여서 협력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소에게 먹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도 있고, 마을 사람들의 식음료를 먹을 용수를 개발하는 경우도 모였다. 부분적인 협력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나 이익은 일반인에게 열려있는 형태를 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였다.

### 10) 멧집(멧집)

동네의 사람들이 모여서 멧(멧치)를 공동으로 잡고, 나누는 제도이다. 그물막(집)에 멧그물을 보관했다가 멧이 들면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태우가 그물을 실어서 바다에 그물을 치기 시작한다. 여러명의 사람은 그물이 뜨지 않도록 물에서 발로 그물이 바닥에 붙도록 밟는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래밭에서 기다리다가 태우가 다시 모래밭으로 접근하여 줄을 넘겨주면 사람들이 끌어서 멧을 잡는다. 이호의 경우 이 멧은 공동으로 나누어 먹기도 하지만 거름(걸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sup>38)</sup>

함덕의 경우는 ‘그물재’라고 하여 ‘계’의 형태로써 마을별로 있었다고한다. 1구에 2개, 2-3구에 2개, 팽사동에 1개 정도가 있었다. 그물재로 거두어들이는 고기들은 우선 팔아서 계원들끼리 돈으로 나누었고, 나머



<그림 10> 멧집(강일 그림)

<sup>34)</sup> 환00, 2013.12.13 인터뷰.

<sup>35)</sup> 현00, 2013.12.1 인터뷰.

<sup>36)</sup> 송00, 2013.11.27 인터뷰.

<sup>37)</sup> 송00, 2013.11.27 인터뷰.

<sup>38)</sup> 황00, 2013.11.29 인터뷰.

지는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거나 거름(걸름)을 만들었다고 한다.<sup>39)</sup>

마을마다 운영형태는 다르지만 모래밭이 있는 마을들이 땀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전체가 참여하고 마을 전체주민들의 이익의 형태로 협력하는 경우가 있었고, 계원의 형태로 협력을 이루는 경우도 있었다. 바다와 관련된 것이어서 엄격하게 경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마을주민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협력의 사회적 자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11) 쇠 번(番)

동네의 소들을 모아 하루 종일 먹이고 다시 돌아오며, 그 일을 번 회원들간에 돌아가면서 이행하는 일을 번이라 한다.<sup>40)</sup> 열 가구이면 열흘에 한 번 번을 서면 되고, 혹 소들이 많아서 두 명씩 번을 가더라도 5일에 한 번 번을 서면 되는 편리성이 있다.

출발할 때나 귀가할 때 동네어귀의 갈림길 같은 곳에는 번 회원들이 나가서 배웅 혹은 마중을 해줘서 번에 섰던 사람이 소를 몰고 움직이는 데에 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sup>41)</sup>

이는 번 소속 가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의 순서에 따라 수놓음 하는 형태의 협력의 모습이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를 얻기위해 필요한 사람들끼리 협력하는 사회적 자본의 모습이었다.



<그림 11> 쇠 번(강일 그림)

### 12) 출력(出力)

<sup>39)</sup> 환00, 2013.12.13 인터뷰.

<sup>40)</sup> 송00, 2013.11.27 인터뷰.

<sup>41)</sup> 송00, 2013.11.27 인터뷰.

마을 길이 태풍 등으로 훼손되어 되었을 때, 주민들이 직접 나와 힘을 보태는 것을 출력이라고 한다.<sup>42)</sup> 함덕의 경우는 이러한 출력을 ‘인력’이라고 표현하고, 동원할 때는 “인력 나오라”고 표현했다고 한다.<sup>43)</sup>

사안에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지역별로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출력을 못하였을 때는 ‘귤금’ 혹은 ‘귤’이라 하여 돈이나 다른 떡 등으로 내도록 하기도 했다.

바닷가 마을의 경우 태풍으로 포구가 훼손되는 일이 많아서 출력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현사마을의 경우 포구를 처음 만들 때에는 현사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인근 중산간 마을에서도 도와주었다고 한다. 해안마을,도평마을 등에서 내려와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는 중산간 마을들이 여름이면 바닷가에 와서 멸치도 잡아가고 다른 생선이나 미역등도 수확하여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닷가 마을 포구를 매개로 해서 마을단위별로 협력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4)</sup>

동귀리의 경우도 사라호태풍으로 포구(성창)이 무너졌을 때 어부들 중심으로 두 석달에 걸쳐서 썰물이 있을 때만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받침대로 쓸 큰 나무를 어부들이 캐어와서 준비하고 작업을 한 것이다.<sup>45)</sup>

가파도의 경우는 주로 태풍이후 바닷가의 쓰레기치리를 위해 출력(동원)이 많았다고 한다. 가파도에서는 동원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봉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sup>46)</sup>

가파도에서는 3월 경 톳을 채취할 때도 출력의 형태로 마을 주민 전체가 나와서 일을 하고, 참석 정도에 따라서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가파도의 경우는 조합원이나 어촌계원 등과 관계없이 가파도민 모두가 나와 봉사하는 협력의 형태였다.<sup>47)</sup>

<sup>42)</sup> 송00, 2013.11.27 인터뷰.

<sup>43)</sup> 환00, 2013.12.13 인터뷰.

<sup>44)</sup> 환00, 2013.11.29 인터뷰.

<sup>45)</sup> 환00, 2013.12.1 인터뷰.

<sup>46)</sup> 김00, 2013.12.2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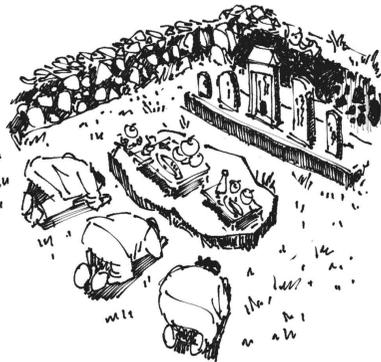
출력은 사안에 따라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석하는 형태의 협력의 모습이였다. 심지어는 인근 마을에서도 협력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섬인 제주도의 경우 태풍이나 재난재해가 많아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협력의 사회적 자본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아진다.



<그림 12> 출력(강일 그림)

### 13) 마을제

매해 정초에는 마을마다 마을의 안녕과 평안, 건강과 풍작과 풍어 등을 위해 마을제를 지냈다. 이 마을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7일 정도를 제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새었다. 몸을 정결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2박 3일 정도를 같이 지내면서 몸을 정결히 하고 제를 지낸다. 일반적으로는 천제라고 하여 마을의 주민들이 안녕을 기도한 것이다.



<그림 13> 마을제(강일 그림)

바닷가의 경우는 바다에서 사고가 없도록 빌었다. 가파도의 경우는 마을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마을회에서 낸 예산으로 마을제

47) 김00, 2013.12.2 인터뷰.

를 치렀다.<sup>48)</sup>

마을제는 마을전체가 참여하여 협력하고 행사를 치루는 형태이다. 보여지는 이익은 아니지만 마을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원하는 모습의 풍습으로써 심적인 협력을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14) 도갯불 관리

지금의 등대처럼 호롱불을 밝히며 항해하는 배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을 도갯불이라고 한다. 바닷가의 도갯불관리도 하나의 협력의 형태를 보였다. 도갯불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촌계 등 마을에서 제공하는 기름을 가지고 관리를 했다. 그 보답으로 어부들은 생선을 반찬으로 주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한다.<sup>49)</sup>



<그림 14> 도갯불 관리(강일 그림)

함덕의 경우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여 회원제로 돌아가면서 등을 켜고 관리하도록 하였다.<sup>50)</sup>

도갯불관리는 본인이 직접적인 이익은 없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협력해주는 봉사형태의 사회적 자본의 모습이였다.

## 4. 제주지역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특징

48) 김00, 2013.12.2 인터뷰.

49) 현00, 2013.12.1 인터뷰.

50) 한00, 2013.12.13 인터뷰.

위에서 조사한 제주도의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집단별로 사익추구적인 맥락에서 시작되었지만 공개되어 마을 전체로 확대되는 형태가 있었다. 둘째, 사회적 보험의 형태가 있었다. 셋째, 협력의 형태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마을공동목장, 겹부조, 그릇재 등이 대표적이다. 넷째, 마을간의 협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표 3> 제주지역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유형별 분류

협력형 사회적 자본 유형 구분		협력의 형태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수익창출	재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	마을에 대한 사안별 봉사
개방 정도	관련 있는 주민들간의 참여	Type I : 공동목장, 그릇재, 케왓, 초집일기, 쇠번	Type II: 출력	Type III
	관련 주민 참여와 마을 전체 참여의 경계	Type IV: 물방애, 용수집단, 원담	Type V: 출력	Type VI: 도맷불
	마을 전체가 참여	Type VII: 겹부조, 땀집	Type VIII: 출력	Type IX: 상여, 마을제

개방정도와 수익창출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면 아홉가지의 유형이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관심을 가질 부분은 Type I, Type IV, Type VI, Type VII, Type VIII 등이다. Type I, Type IV, Type VI 유형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로서 협력의 모습이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난 형태이다. Type II, Type V, Type VIII 유형은 출력의 경우로서 사안별로 나타나는 형태여서 재해나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Type VI 유형으로써 마을에 대한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도맷불관리나 Type IX 유형으로써 관혼상제에 대한 협력으로 나타나는 상여와 마을제 등은 개방적이면서 유형의 자원이기보다는 심정적이거나 형체화하기 힘든 무형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사회발전 동인으로써 협력형 사회적 자본 증진 전략

### 1. 사회적 자본을 사회발전의 동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

섬 지역이면서 농업사회에서 제주지역의 삶의 중심에 있던 협력적 사회적 자본의 형태들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차츰 쇠퇴하고 있다. 산업의 구조와 성격이 달라졌고, 생활문화가 바뀌었으며, 공동체의 형태도 도시화되면서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나 모습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마을제와 같은 형태의 사회적 자본의 모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 있지만 경제적 생활과 관련되었던 사회적 자본의 모습들은 오히려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협력적 사회적 자본에서 폐쇄적 배타성을 보이는 제도로 바뀌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어온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모습이 지역사회발전의 동인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염려하는 사회적 자본이 줄 수 있는 역기능을 차단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sup>51)</sup>을 정리하면 첫째,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외부인에 대해서는 접근을 차단하여 배제시

51) 박희봉의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조명문화사, 2009 에서는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사회자본에 의해 효율성 증가 등의 혜택을 얻는다면, 이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타적 결속행위는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고 사회갈등을 유발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박세경 외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연구와 진관훈의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증대 방안 연구』, 2012 연구에서도 강력한 연대 속성을 지닌 공동체는 나태한 구성원들의 성공한 구성원들에 의존하는 '무임승차문제'를 갖게 되고, 이는 기업가적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인종과 종교가 같은 동질집단 내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끈끈하게 형성되지만 이질집단에 대해서는 적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섬으로써 갖는 배타성 등의 이미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형 사회적 자본이 배타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구성원에게 ‘과잉요구(overdemand)’를 유발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협력사회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제공해야 할 의무적 노력이 있고, 이 노력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면 구성원에게는 큰 부담으로 와 닿는다는 해석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농업사회에서 가능했던 노력봉사가 어려워짐에도 동네 청년 등에게 출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과잉요구의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의 자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에서 중첩된 연결망이 공동체의 삶과 고유의 규범을 강요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율성은 감소하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관혼상제에 대한 과거의 풍습에 적응하고,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제도에 구속시키는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공동체적 협력의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비용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범위내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속에서 공동체에 제공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떠나서 제주지역을 살펴보면 귀당문화, 학연, 지연 등도 사회적 자본으로 포장되어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사회적 자본이 줄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협력적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 발전의 동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2 협력형 사회적 자본 증진전략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증진 전략은 앞 3장의 제주지역 사회적 자본 연구 조사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유형화하였던 세 가지의 틀의 범위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수익창출을 위한 협력형 사회적 자본 증진전략이다. 농업부문에서 수놓음 형태를 부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지역마다 특용작물이 있고, 감귤이라는 품목은 제주도 전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협이나 주민자치센터, 혹은 리단위 등에서 수놓음 형태의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증진 전략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2007년 나리 태풍과 해마다 있는 홍수, 2013년 가뭄, 재선충 피해, 그 외에도 다양한 전염병 등의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재해와 재난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군에 의존하거나 공무원에 의존하는 형태이다. 일반 도민들로 부터 조상들의 출력형태, 혹은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에 노력동원 형태의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마을단위별로 마을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경우에도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노력봉사를 유도하는 체계를 만들면 될 것이다.

셋째, 마을에 대한 사안별 봉사형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증진 전략이다. 2014년 현재에도 마을별 마을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회나 청년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기부금을 모아내는 것으로 대신하면서 가족의 인연을 기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제의 풍습은 후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의 미풍양속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들어 제주지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개인,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족, 혹은 개인들을 위한 봉사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 혹은 노력없이도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제주도의 협력형 사회적 자본은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 중에서 제주지역의 수눔음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협력형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지역의 협력형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을 했던 지역의 향토자원을 조사하고, 협력형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사회적 자본 연구들이 사회적 자본의 정량적 측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했다면, 이 글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요인 중에서 제주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써 ‘협력’요소를 도출하고, 협력형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수익창출을 위한 협력형 사회적 자본 증진전략으로써 농업부문 현장에서 수눔음의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재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증진 전략으로써 과거의 출력형태나 새마을운동시 노력동원 등의 정신이 살아나는 마을만들기 형태를 제안하였다. 셋째, 마을에 대한 사안별 봉사형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증진 전략으로써 마을제를 활성화시키고,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외국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면 첫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교육과 협력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서 부터 봉사를 이끌어내고,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재능기부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재능공유 공간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넷째, 시니어분들에게도 전문성의 재능을 기부하도록 하여 도시마을 공동체가 과거의 협력의 모습으로 살아나고 후대에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혜연,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3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1.
- 남제주군, 『군제 60주년 남제주군지 제Ⅱ권』, 2006.
- 류현숙·정지범·김동환, 『지자체 사회적 자본 측정지수 개발 및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 박세경·김형용·강혜규·박소현,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박희봉,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조명문화사, 2009.
- 박희봉·김명환,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제4호, 한국정치학회, 2000.
- 법환마을회, 『법환향토지』, 2000.
- 소진광,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04.
-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역사편』, 2006.
- 조권중,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 중문마을회, 『중문 향토지 불란지야 불싸지라』, 1996.
- 진관훈,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증대 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 최길수,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의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13.
- 홍영란·김태준·현영섭·소진광·이승희, 『사회적 자본 지표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 Alan Kay, *Social capital, the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and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2005.
- Christiaan Grootaert, Deepa Narayan, Veronica Nyhan Jones, Michael Woolcock, *Integrated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SC-IQ)*, The

World Bank Social Capital Thematic Group, 2003.

Coleman, James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1988.

Krishna, A&E. Sharder, *Social Capital Assessment Tool*, Working Paper No. 22.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1999.

Fukuyama, Francis,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Putnam, R., *The prosperous community—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1993.

강만익,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

고광민,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

김동섭,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

김혜숙,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

현용준,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

Abstract

## A Study on research the Cooperative(Sunurum)–Type Social Capital Enhancing Methods in Jeju Community

Kim, In–Sung\*·Hwang, Kyung–Soo\*\*·Oh, Yun–Jung\*\*\*

This study drew one factor (Cooperation) among sub–factors that measure social capital in order to explain social capital in Jeju community. This study also examined and classified local resources that played a role as cooperative (sunurum)–type social capita in Jeju.

This paper suggests strategies of expanding cooperative social capital which can be a driving force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Jeju region. First, as a strategy of expanding cooperative social capital for overcoming financial difficulty and creating profits, Sunuleum, Jeju’s special system of exchanging labors, should be established in agricultural sector. Second, as a strategy of expanding social capital for dealing with crisis such as natural disaster, villages should have a spirit of volunteering and joining forces to make better community like the one we had during the new community movement called

---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corresponding author.

\*\*\* Instruct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aemaeul Movement. Third, as a strategy of expanding volunteering type social capital, each village should have annual village ritual and establish volunteer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and foreign residents.

Key Words : Jeju Community, Sunurum, Cooperative-Type Social Capital, Cooperative-type social capital enhancing strategy

교신: 황경수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E-mail: [kshwang@jejunu.ac.kr](mailto:kshwang@jejunu.ac.kr))